

이진아 첫 싱글앨범 '애피타이저' 발표

작사·곡 타이틀곡 '배불리'
유희열 편곡한 팝 재즈곡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2016 '진아 식당'.

싱어송라이터 이진아(25)가 2016년 개업을 목표로 '진아 식당'을 연다. 지난 2014년 SBS TV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에 출연해 뛰어난 작곡실력과 화려한 연주로 주목받고 가수 유희열(45)이 이끄는 안테나의 가족이 된 지 2년 만이다.

'K팝스타'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얻은 '천재'라는 수식어는 자신감인 동시에 부담이 됐다.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걱정도 많았고, 어떤 노래를 해야 하나 부담도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주는 것도 이상하고, 원래 쉽게 곡을 만드는 편이었는데 머리에 그런 복잡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완벽한 건 세상에 없다는 마음으로, 쉽게 음악을 만들되 편곡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난 10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애피타이저(Appetizer)'는 '진아 식당'의 첫 번째

메뉴다.

9일 오후 서울 신사동 M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감상회에서 이진아는 "간식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간식처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서는 만큼 특유의 음악과 목소리를 '맛보기' 하고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더할 수 있는 노래를 담았다.

"음식과 음악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음악과 음식 모두 재료가 많이 필요하고, 장르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지만, '희열'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시아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진아 식당'에 대한 아이디어는 유희열

이 냈다. 음반 중심에서 음원 중심으로 변한 음악 시장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추후 '메인 메뉴'와 '디저트' 격인 앨범을 발매해 정규 1집 '진아 식당'을 완성할 계획이다.

"저도 그렇지만 앨범이 나오면 정말 관심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 이상 타이틀곡만 듣게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다른 곡이 묻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피타이저를 보여드리고, 또 메인 메뉴를 보여드리면 자주 소식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타이틀 곡 '배불리'는 이진아가 작사·작곡하고 유희열이 편곡에 참여한 팝 재즈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배부른 마음을 표현했다. 재즈 베이스에 과감하고 다양한 악기 편성이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하고, 팝적인 요소가 풍성한 사운드를 완성한 노래다.

"2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새로 배운 것도 많이 넣어봤어요. 재즈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가요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들을요."

이 외에도 이진아가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사·작곡하고 밴드 '페퍼톤스'의 신재평이 편곡한 '라이크 앤드 러브(Like&Love)'가 실렸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 사이에서 겪는 진지한 고민을 따뜻한 멜로디로 촘촘하게 쌓아 올린 곡이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음악을 통해 많은 분이 미소를 짓게 되는 게 제 작은 꿈이거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진아의 '애피타이저'도 어디까지나 애피타이저다.

"두 곡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양한 후보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메인 요리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주 기자

'프로듀스101' 김나영, 젤리피쉬 걸그룹 합류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김나영이 이달 말 데뷔하는 젤리피쉬의 첫 걸 그룹 멤버로 합류한다.

'프로듀스101'에서 최종 11인으로 선발돼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10.1)'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정, 감미나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김나영 역시 '프로듀스101'에 출연해 초반부터 A등급으로 분류되며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주목받은 멤버다. 최종 11인의 문턱에서 안타깝게 탈락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소속사 선배 그룹 '빅스'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젤리피쉬는 "오랫동안 김나영의 데뷔를 기다려 온 팬들에게 더욱 반갑게 느껴질 소식"이라며 "하반기 가요계를 강타할 막강한 걸 그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이름과 데뷔 날짜, 멤버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군산남초 야구부,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군산남초(교장 문희자) 야구부가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전국소년체전이 전국 100여개 초중 야구팀들이 지역선발전을 거쳐 최강팀이 겨루는 경기이니 만큼 상대적으로 야구에 약세를 보인 전북대표 군산남초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진 역시 군산남초에 웃어주지 못했다. 경남권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부산 수영초와 13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는 에이스를 보유한 대전 신촌초를 각각 예선 1, 2차전 상대팀으로 결정돼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예선탈락을 예상했다.

하지만 군산남초는 하나 된 모습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해 4강까지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이렇게 승부치기로 패배했지만 우승후보들을 꺾고 결승진출의 문턱까지 간 군산남초의 투혼은 대회 관계자들이 최고의 이변 중 하나로 손꼽을 만 했다.

/김민근 기자

박인비, 최연소 LPGA 명예의 전당 입성 '위업'

박세리 기록 갈아치워

'골프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살아있는 전설'로 거듭났다.

(본보 6월 9일자 13면)

박인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사할리 골프클럽(파71·6624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2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1950년 출범한 LPGA 명예의 전당은 66년 역사 동안 불과 24명의 선수(포인트 기준 20명)에게만 문을 열어줬다. 박인비는 25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 박세리 이후 9년 만에 탄생하는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자다.

27세 10개월 28일 만에 명예의 전당에 가입한 박인비는 박세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대 최연소(29세 8개월 10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인비는 이날 1라운드 종료와 함께 LPGA 명예의 전당 입성 조건을 모두 채웠다. 10개 대회에 출전해야 1년을 인정받게 돼 박인비는 이번 대회 1라운드를 마치고 동시에 LPGA 투어 활동 10년 이상 조건을

만족시켰다. 투어 통산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총 17승을 거둔 박인비는 올해의 선수상 1회, 최저타수상을 2회 수상했다. 지난해 최저타수상(베이트로피)을 수상하면서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27포인트를 모두 채웠다.

명예의 전당 헌액 조건은 LPGA 투어 활동 10년 이상, 메이저 대회 우승, 베이트로피(최저타수상)·올해의 선수 중 최소 1개 이상, 27포인트(메이저 2점·LPGA 우승 1점·베이트로피·올해의 선수 1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나 청야니(대만) 등의 유명한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지 못한 것도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아울러 박인비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단일 대회 4연패에도 도전한다. 정상에 오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대회 3연패를 차지한 아니카 소렌스탐을 제치고 신기록 보유자가 된다.

한편 박인비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로 라운딩을 마쳐 공동 21위를 마크했다. 이븐파 71타를 써 내 공동 10위에 오른 세계랭킹 1위 리더이고(19·뉴질랜드)와는 1타 차이다.

/김민근 기자



동료 선수에 안기고 있는 박인비.

소나무, 댄스곡 '넘나 좋은 것' 29일 발매

그룹 '소나무' (수민·나현·뉴현·하이다·의진·민재·디애나)가 오는 29일 세 번째 미니앨범 '넘나 좋은 것'을 낸다.

지난해 7월 '쿠션(CUSHION)'으로 발발한 걸스 합함을 보여준 뒤 1년 만이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음반에는 지난 1년간 소나무 멤버들의 노력과 성장을 담은 여섯 곡이 담겼다. 특히 뉴현과 디애나가 작사에 참여하며 기량을 뽐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 곡은 작곡가 원더키드와 박수석, 김창락이 협업한 발랄한 댄스곡이다. 선배 가수 전효성과 'B.A.P'의 히트곡을 만든 라인업이 의기투합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나무의 매력을 담았다.

한편 본격적인 활동에 앞선 10일 TS엔터테인먼트는 분홍색 비비인형이 담긴 티저 사진을 공개하며 새 앨범을 예고했다.

/이성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